

시나리오

S#1 학교 (풋살장 / 2022.10.07.)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이 굴러간다.
누군가의 발에 의해 공이 힘차게 차여진다.

‘퍽-’

정우와 대성의 머리가 부딪힌다.

주변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삐 소리와 함께 정우가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한다.

S#2 야외 (거리)

대성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다 앞에 있는 인물을 보고서 뛰기 시작한다.

대성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화들짝 놀라는 정우

그의 손목에는 위치가, 귀 위로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대성은 정우와 눈을 맞추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

대성 | 학교 가는 거지? 같이 가자.

하지만 정우는 대성을 잠시 보더니 손을 쳐 내고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가버린다.

대성은 다시 정우의 옆에 붙어 말을 건다.

대성 | 역시 오늘도 쌀쌀 맞구나~

정우의 위치에 짧은 진동이 울린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온 문자이다.

‘학교 가는 중이야?’

‘검사 결과 보낸 거 봤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대.’

‘전화해도 돼? 아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우는 문자 화면 위로 걸려 오는 엄마의 전화를 받으려다 멈춘다.

옆에서 정우의 휴대폰을 보고 있던 대성은 본인이 휴대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는다.

대성 | (소리 볼륨을 낮추며) 네 어머니 저 대성이예요~ 아... (정우를 슬쩍 쳐다보며) 네 그럼요.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성에게 정우가 말한다.

정우 | 왜 내 전화를 니가 받아.

대성 |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 걱정하시잖아.

정우 | (앞으로 걸어나가며) 신경 꺼.

대성 | 야. 같이 가!!

S#4 학교 (교실)

공을 들고 정우의 반을 찾아온 대성

대성 | 정우, 풋살하자

정우는 대성이 들고 있는 공을 보고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
눈을 꼭 감았다 뜬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정우 | 안 해. 너나 해.

S#1 학교 (풋살장)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공을 차고 있는 남학생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우의 눈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을 넣고 웃으며 뛰는
대성이 들어온다.

한동안 정우의 눈은 대성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
그러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
대성은 정우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정우는 무시하고 가버린다.
그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는, 이제는 지쳐가는 대성

엑스트라A | 뭐해, 빨리 와.

대성 | .. 어

S#3 야외 (거리)

앞으로 먼저 걸어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대성
한참을 생각하다 휴대폰을 들고 정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정우의 손목에 있던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
진동을 느끼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우

'계속 나 피할 거냐'

문자를 보고서 걷다 멈춰선 정우
이때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 진다. 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는 정우
정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

대성 | 앞에 보라고 서정우!!!!

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다 정우의 팔을 잡는 순간
키패드가 정우의 옆을 빠르게 지나간다.

킥보드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서야 상황파악이 된 경우는 대성을 바라본다.
그런 정우를 보던 대성은 넘어진 시민에게 다가간다.

대성 | 괜찮으세요?

그 모습을 보던 정우는 또 다시 빠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뒷걸음 치며 도망가듯 가 버린다.
대성은 그런 정우를 바라본다.

S#5 정우 집 (조명 사용)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한 정우
세면대 물을 틀어 투박하게 얼굴을 씻어낸다.

격한 세수로 옷이 젖어버린 정우는 온 몸에 힘이 풀린 채로 무릎을 가져와 찌그러 앉고
두 손으로 귀를 툭툭 치기 시작하다 점점 세게 쳐 낸다.
그렇게 정우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된다.

S#5 대성의 집

정우에게 보낸 문자 화면을 보며 책상에 앉아있는 대성
과거 정우와의 일화를 떠올린다.

S#5 정우의 집 > 과거회상 (2022.10.09.)

집에 들어서며 정우를 부르는 대성

대성 | 서정우!! 서정우!!!!

방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는 정우의 귀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열게 들려온다.

대성 | 서정우!!!!!!!!!!

정우의 방 문을 확 열어버린 대성과 그 앞에 서 있는 정우

대성 | 미친새끼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

미간을 찌푸린 정우의 시선은 대성의 입으로 향해 있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성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대성 | 야.. 너,

정우 |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하 씨, 뭐라는지 못 알아 먹겠네 진짜.

대성 |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미세하게 저어 보인다.)

정우 | 근데 씨발 넌 왜 멀쩡하냐. (헛웃음치며) 나만 병신됐네.

(잠시 망설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따라 붙으라 했잖아. 아니다, 가라.

믿을 수 없다는 대성의 표정과 거친 정우의 표정이 대조되고서 정우에 의해 문이 닫혀 버린다.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대성이다.

S#5 대성의 집

회상을 끝낸 대성은 크게 한숨을 내쉰다.

책상에 놓여진 수화책을 뺀히 바라보며 책상 위로 손을 두드린다.

‘탁- 탁- 탁-’

생각을 끝낸 대성은 책을 펼쳐 본다.

대성 | (손을 꼼지락 거리며) 이게 ..ㄱ... 이렇게가 나....

S#5 정우의 집

지쳐 누워있는 정우와 손목에 차여진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

S#6 공원 (밤)

대성 |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너 귀 더 안 좋아지는 거냐

정우 |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냐

대성이 정우에게 책을 건넨다. 건네 받은 책이 수화책임을 알게 된 정우는 대성에게 화를 낸다.

대성 | 그것도 그렇고 (책을 건네며) 이거. 귀 더 안좋아지는 거면,

정우 | (책을 보고) 적당히 해. 야 너는, 너는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냥 우습지.

대성 | 무슨.. 아니 그런게 아니라,

정우 | 나 귀 먹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냐? 적당히 떠들어. 너한테 지금 이 상황들이 다 웃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웃고 떠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대성 | 왜 또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정우 | 수화? 수화는 뭘 수화야. 괜한 오지랴 그만 부리고 너나 잘해.

뒤로 돌아선 정우는 대성에게 전해 받은 책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리고서야 떠나버린다.

S#3 야외 (거리)

헤드셋을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는 정우와 뒤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잠시 정우를 쳐다보던
대성은 정우의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버린다. 정우 역시 이를 인지한다.

S#4 학교 (교실)

교실 안에서 책만 바라보고 있는 정우와 교실 밖에서 한 손에 공을 안은 채 지나가는 대성

S#3 야외 (거리)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대성의 뒤에서 홀로 조용히 걷는 정우의 모습이 대비된다.

S#4 학교 (사물함)

누군가 사물함을 향해 걸어간다.

사물함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우가 버렸던 수화책이 들어있다.

S#4 학교 (교실)

홀로 교실에 남아 공부하던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 서랍에서 책 한권을 꺼낸다.

서랍에서 나온 책은 당시 정우가 버렸던 바로 그 수화책이다.

수화책을 펼쳐 보는 정우는 주변을 살피는 동시에 손이 움찔거린다.

그렇게 홀로 수화 연습을 시작하는 정우이다.